

강진 성전중 학생들, 마음 속 '아이돌' 이해인 수녀 만나다

국어수업 중 "수녀님 시 직접 듣고 싶다"던 아이들 광주서 시 낭송하고 노래 부르고 '특별한 하루' 이해인 수녀 "진심 담긴 표정 보니 맘이 따뜻해져"



해인 수녀가 아이들 이름을 쓴 나무조각.



성전중 학생들이 해인 수녀에게 쓴 편지.

수십장의 스티커 봉지, 각종 색연필과 싸인펜, 바다에서 주운 조각비... 이해인(70) 수녀의 검은색 작은 가방에서는 끝도 없이 물건이 나왔다. 꼭 화수분같았다. 수도원이 있는 부산 문방구에서 사온 조그마한 나무조각에는 일일이 색색의 끈을 묶었다. '행복의 얼굴' 등 시가 인쇄된 종이에 꺼내놓았다. 오늘 만날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다.

지난 23일 광주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 해인 수녀가 만난 친구들은 강진 성전중(교장 김종만) 학생들이었다. 전교생 32명중 1~3학년 17명은 이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해인 수녀는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물어 작은 나무조각에 썼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 하나뿐인 선물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준비한 순서가 이어졌다. "눈을 감고 들을게요." 해인 수녀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2학년들은 해인 수녀의 시 '말의 빛'을 낭송했다. 1학년들은 수녀의 시를 노래로 만든 '매일 만나는 친구인대'를 불렀다. 음정도 화음도 엉망이었지만 듣는 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해인 수녀는 "힘차게 전진하는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 '산처럼 바다처럼'을 낭송했다.

"시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내

마음이 너무 뒤편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큰 선물을 받았습시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만나니 젊어지는 것 같아요. 스마일하고 우리 사진 찍어요. 사랑합니다."

이날 만남은 지난 5월, 1학년 국어시간에서 시작했다. 이해인 수녀의 시 '듣게 하소서'를 공부하던 아이들은 직접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국어 교사 강경희(55)씨는 해인 수녀와 40년 인연을 맺고 있는 베토벤 이정옥 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런 인연으로 전화가 연결됐다. 강교사의 스마트폰을 가운데 놓고 대화가 이뤄졌다. 아이들은 작가가 꿈인데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묻고,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인지 들려달라고 했다. "우리 광주에서 한번 만날까?" 해인 수녀가 말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막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보내주기도 했죠. 정이 새록새록 쌓였어요. 강진의 중학생 친구들과 인연을 생각하며, 암 환자로 임종을 앞두고 있던 독자의 어머니를 만난 사연을 떠올리며 얼마전 에세이도 썼어요. '모르는 이웃과 친해지기'라는 제목으로요. 당시 우리 기회가 되면 무등산 아래서 한번 만나자 했는데 이렇게 정말 이루어졌네요. 참 귀한 인연입니다."

처음 어색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인 수녀는 한때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사인 받아다 주는 게 일어있었다며 분위기를



지난 23일 광주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에서 만난 이해인 수녀와 강진 성전중학교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풀어나갔다. "전화 목소리가 너무 젊어서 훨씬 젊은 분인줄 알았다. 생존해 계셔서 감사하다"는 한 학생의 말에는 "땀" 웃음이 터졌다.

대화가 끝나고 아이들은 해인 수녀에게 손편지를 전달했다. 양증맞은 하트와 그림으로 장식한 편지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꾀꼬리예요.", "글씨는 지

렁이 같지만 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오늘 처음 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희집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너무 슬퍼요.",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베토벤이라는 예쁜 장소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너무 좋아요. 재미있으시고, 아름다우세요." 1학년 전지민군이 그린 해인 수녀의 초상화는 빙그레 웃음짓게 만든다.

해인 수녀가 머무는 수도원에는 독자 편지를 모아두는 창고가 있다. 해인 수녀

는 아이들 편지를 두고 두고 꺼내 읽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먼길을 마다하고 달려와 준 해인 수녀, 아이들에게 시의 세계를 열어주고 그들의 작은 소망도 이뤄주려 애쓴 선생님, 그리고 맑은 마음으로 시를 읽고 진심을 전한 아이들.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 시골 마을 아이들의 '내 생애 특별한 하루'가 완성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대학랭킹 1000위 발표...서울대 24위 등 국내 36곳 포함

광주과기원 301위·전남대 384위·조선대 878위

전남대, 국내 순위 10위로 경총...조선대 32위

세계대학랭킹센터(CWUR)가 최근 발표한 2015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지역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조선대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과기원은 301위를 기록했으며 전남대는 384위, 조선대는 878위에 랭크됐다. 세계대학랭킹센터는 설문조사나 대학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매년 대학의 연구역량과 교수의 질, 교육의 질

등을 토대로 전 세계 대학 중 상위 1000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상위 1000위 대학에 포함된 국내 대학은 36개에 불과하다. 이중 광주과기원은 국내 9위, 전남대는 10위, 조선대는 32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대는 지난해 400위에서 16계단 상승했으며, 국내 순위도 기존 20위권에서 10위로 진입했다. 서울대는 작년과 똑같이 세계 24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98위), 고려대(115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 144위), 포항공대(포스텍, 165위), 한양대(192위), 성균관대(211위), 경북대(307위), 광주과학기술원(301위), 전남대(384위), 이화여대(390위) 등이 400위 내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계 1·2·3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하버드대·스탠퍼드대·MIT였고, 아시아 1·2위는 각각 세계 13·17위인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계 밖 '지구 사촌' 최초 발견...생명체 있을까

1400광년 거리·나이 60억년...크기·궤도 등 비슷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녔을 개연성이 있는 '또 하나의 지구'가 태양계 밖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지구에서 1천400 광년(1경(京)3천254조(兆)km) 거리에 있는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 중 크기와 궤도 등 특성이 지구와 가장 비슷해 '지구 2.0'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3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행성 '케플러-452'와 그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 '케플러-452b'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백조자리에 있는 항성 케플러-452는 분광형으로 볼 때 태양과 같은 'G2'형이며, 온도는 태양과 비슷하고 지름은 10% 더 크고 밝기는 20% 더 밝다.

이 항성의 나이는 60억 년으로, 우리 태양(45억년)보다 15억 년 더 오래됐다. 그 주변을 도는 행성 케플러-452b는 지름이 지구의 1.6배이며, 공전 궤도는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며 지구 크기와 비슷한 외계 행성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플러-452b는 또 지금까지 발견된

'거주 가능 구역' 행성들 중 가장 크기가 작다. 케플러-452b의 공전주기는 385일로 지구보다 약 5% 길고, 이 행성과 그 모항성 케플러-452의 거리는 지구-태양 간의 거리보다 5% 멀다.

NASA 과학 미션국 부국장 존 그랜스펠드는 "다른 항성들이 행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케플러 외계행성 계획이 지구와 우리 태양을 가장 닮은 행성과 항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NASA 에이미스 연구소의 존 켄킨스는 "케플러-452b는 지구보다 나이가 많고 몸집이 큰 사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2회 '시인이 도다' 가을편 빛창공모전

여러분의 감성을 담아주세요. 밝은광주인과 제2회 '시인이 도다' 빛창공모전 가을편을 개최합니다. 빛창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인과 눈모양빌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인 여러분의 감성을 듬뿍 담은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 기간 : 2015년 7월 24(금) ~ 8월 13(목)
발표일 : 2015년 8월 17일(월) 오전 10시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주제 | 가을, 단풍, 여행, 사랑 등 자유주제

접수방법 | 밝은광주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best-lasik.co.kr)

시상내용 | 대 상 (1편) : 문화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 (1편) :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상 (2편) : 문화상품권 10만원
가 격(10편) : 문화상품권 3만원

문의
밝은광주인과 기획실 ☎062-351-9938

2015년 여름편 당선작
부슬부슬, 여름 비는 더워야 오고
몽글몽글, 내 마음은 너여야 온다

밝은광주인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